

OpenDoors

11

2022

VOL.247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브라더 앤드류(BROTHER ANDREW) 특집

- 브라더 앤드류가 걸어온 여정들
- 가슴 속에 불타오른 브라더 앤드류의 사명
- 이야기 너머의 스토리텔러, 브라더 앤드류
- 하나님의 밑수꾼 브라더 앤드류

머스카슬론 후기

IDOP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

Ch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오픈도어선교회의 창설자가 되는 브라더 앤드류의 삶의 유산

김성태 명예교수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공동대표)

앤드류 판 더 베일(Andrew van der Bilj) 일명 브라더 앤드류라고 불렸던 오픈도어선교회의 창설자가 되신 분이 2022년 9월 27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향년 94세로 소천하였다. 그는 1955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세계 공산당 청년대회를 참관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산권 선교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오픈도어선교회의 창설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20년에 특별 선교대회가 바르샤바에서 준비되었으나 코로나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2년 연기되어 2022년에 개최되었다. 그 대회 기간에 브라더 앤드류는 참석할 수 없었는데, 이때 이미 천국 입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브라더 앤드류의 삶의 여정을 되짚어 보면,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한 사람의 전적인 순종은 한 국가의 군대를 총동원하는 것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된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시에 독일 나치스 군대의 만행을 경험하였고, 어린 나이에 네덜란드 식민지 군대에 합류하여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전쟁의 참혹함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자신이 냉혹한 살인 병기가 되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트라우마에 빠지게 된다. 부상으로 본국으로 귀환하여 치료를 받는 중에 그의 미래의 아내가 될 독실한 신자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자신도 극적으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는 주님에게 자신의 전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의 WEC 선교학교에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였다.

고향으로 귀국하는 중에 참석하였던 바르샤바 세계 공산당 청년대회는 그가 평생 헌신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오픈도어선교회가 창설이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 예수 믿기 이전의 그의 이름 베일은 도끼를 의미하는데 그는 그 이름 그대로 성정이 도끼처럼 날카로웠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정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는 동구라파와 구소련까지 공산당 치하에서 고통받으며 온갖 핍박을 받는 교회지도자와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1970년 도까지 계속 선교여행과 다양한 선교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의 부르심은 중국과 쿠바와 전 세계의 고난 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는 세계적인 사역으로 급속도로 확장이 되었다. 그는 1960년대 말에 그동안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전 세계의 고난 받는 교인들을 소개하기 위한 자서전인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세계 35개국 언어로 출판되었고, 약 천만 권이 넘게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가 창설한 오픈도어선교회의 선교사역은 현재 약 69개국의 선교현장에서 1300여 명의 전임 선교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국제적인 선교단체로 성장이 되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브라더 앤드류의 사역 정신과 신앙 가치를 이어받아서 일곱 개의 근본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앤드류 형제처럼 성경의 사람이 되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며 전 세계의 고난 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아무리 위험한 지역이라도 고난 받는 교인들을 섬기는 일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모든 일에 기도로 진행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다.

앤드류는 70년대 이후로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과 가자 서안지구를 다니면서 고난 받는 현지 원주민 팔레스타인, 아랍 교인들을 위로하고 섬겼으며 메시아 유대인 교인들과 팔레스타인과 아랍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무살라 운동을 벌였다. 그는 서방세계에 증오와 미움을 품고, 온갖 테러행위를 하는 호전적인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마스, 탈레반의 최고지도자, 이란의 아야톨라 등을 담대하게 만났다. 그는 미국을 필두로 서방세계가 이슬람을 저들과 동일한 폭

력적인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과 섬김의 방법으로 저들을 감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을 그의 평생을 통해서 촉구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모슬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랑의 대상이었지 미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브라더 앤드류의 삶은 이렇듯이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산 교훈이 되는 삶이었다.

CONTENTS



- 04 브라더 앤드류(Brother Andrew)가 걸
어온 여정들
- 08 이야기 너머의 스토리텔러 브라더 앤드류
- 12 가슴 속에 불타오른 브라더 앤드류의 사명

- 16 하나님의 밀수꾼 브라더 앤드류
- 22 머스카슬론 후기 - 자원봉사자 장하림
- 23 IDOP-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
- 24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2022년 11월호 | 통권 247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사
사무총장 _김경복 선교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김지옥, 김보미, 오현정, 문민환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김셋별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양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BROTHER ANDREW

브라더 앤드류가 걸어온 여정들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브라더 앤드류의 인생 또한 좋은 이야기와 그렇지 못한 이야기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처럼,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작고 큰 순간마다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많은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여기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그리스도의 제자 브라더 앤드류를 통해 하나님께서 쓰신 작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 브라더 앤드류 ● 오픈도어 사역 ● 오픈도어의 여정

1928

5월 11일, 브라더 앤드류 출생.

1946

브라더 앤드류 네덜란드 육군 입대.

1949

군복무를 하면서 발목에 총상을 당한 브라더 앤드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의 수녀들의 영향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이는 그의 인생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1955

브라더 앤드류는 폴란드 바르샤바(Warsaw)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Congress)에 참석한 뒤,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오픈도어(Open Doors)라고 칭한다. 1955년은 그가 동구권에 처음으로 성경을 밀수한 해이기도 하다.

1957

브라더 앤드류는 소비에트 연방을 향한 첫 방문을 시작한다.



1958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할 성경책 인쇄 시작.

1965

브라더 앤드류, 중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다.

1967

하나님의 밀수꾼(God's Smuggler) 책 발간.

1975

오픈도어는 중국사역 확대를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열린 러브차이나(Love China)컨퍼런스를 지원한다.

브라더 앤드류는 매년 2차례 레바논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1990년까지 레바논 방문을 지속했다. 레바논은 잔혹한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브라더 앤드류는 분쟁을 겪고 있는 모든 진영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에게 성경을 전달한다.

1978

중동교회와 접촉이 시작된다. 1978년, 오픈도어는 아프리카 대륙의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는 계기이자, 오픈도어 역사상 또 하나의 중요한 순간이 된 러브 아프리카 컨퍼런스(Love Africa Conference)를 지원하게 된다.

1979

중국 크리스천들에게 3만권의 신약성경을 전달하다.





1985

라틴아메리카에 500만권의 기독교 서적을 전달한 십자포화작전 (Project Crossfire) 시행. 이를 통해 수천 명의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믿음을 나눌 수 있었다.

1993

브라더 앤드류는 알바니아어 번역 신구약성경 첫 번째 사본을 알바니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알바니아는 한때, 스스로를 세계 최초의 무신론 국가라고 선언했던 나라이다.)

브라더 앤드류는 네덜란드 베아트릭스(Beatrix) 여왕에게 기사 작위를 수여받는다.

1988

오픈도어는 러시아에 100만개의 신약성경 전달 사역을 시작한다. 브라더 앤드류는 첫번째 성경전달 사역을 직접 실행하여 모스크바 수도원에 전달한다.



THE LEGACY OF BROTHER ANDREW 1928 - 2022



2014

오픈도어는 IS를 포함한 이슬람 무장세력들에 의해 강제로 쫓겨난 이라크의 수천명의 난민/실향민 가족들을 지원한다.

2022

브라더 앤드류, 하나님의 품에 잠들다.

2018

브라더 앤드류는 마지막 사역 여행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한다.

1997

오픈도어는 박해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SSTS(Standing Strong Through the Storm)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널리 시행되고 있다.

1998

오픈도어가 첫번째 구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작전명 '데일리 브레드(Operation Daily Bread)'은 전쟁으로 파괴된 남수단의 외딴지역으로 식량과 보급품을 운반하는 프로젝트이다.



© Renske Meinema Photography
www.renskemeinema.com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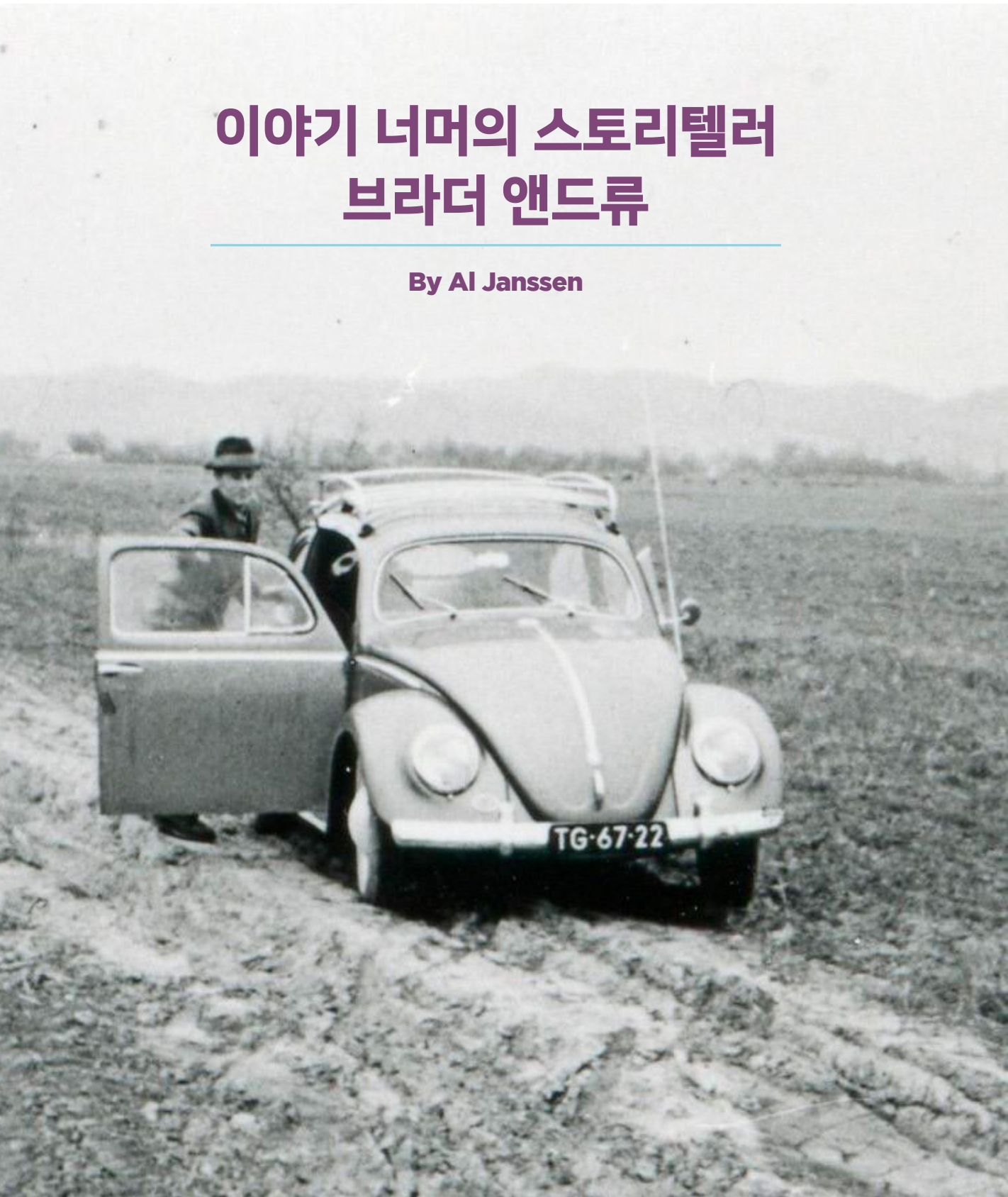
하룻밤 만에 백만권의 성경을 중국 해안에 전달한 진주작전 시행. 수천명의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전달받았다.

1982

오픈도어는 공산권 국가를 위한 7년간의 기도 캠페인을 시작한다. 7년 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소비에트연방(소련)은 복음에 문을 열었고, 수감된 기독교인들은 풀려났다.

이야기 너머의 스토리텔러 브라더 앤드류

By Al Janssen



브라더 앤드류는 자신의 회고록이 베스트셀러가 된 뒤로, 책 제목인 “하나님의 밀수꾼”이란 이름으로 오랫동안 불려왔습니다. 1967년에 초판이 출판되었고 현재 3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판되어 그 자체로 업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판매 부수는 천만권이 넘습니다. 브라더 앤드류의 신실한 삶의 이야기와 철의 장막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도로 감수했던 위험들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신앙을 나누는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도록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픈도어 사역을 통해 브라더 앤드류가 자신의 삶을 바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굳세게 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전세계 교회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밀수꾼’ 외에도 브라더 앤드류는 기도와 전세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삶에 관해 14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책을 홀로 쓴 것이 아닙니다. 브라더 앤드류의 공식적인 대필 작가이자, 마지막 6권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 알 안센(Al Janssen)은 브라더 앤드류의 네덜란드 집을 60번이 넘게 방문하면서, 그의 인생과 전세계 사역의 최전선에서 그와 함께 했습니다. 브라더 앤드류가 소천하기 전, 우리는 안센을 만나 그가 브라더 앤드류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센, 책 ‘하나님의 밀수꾼’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게 되셨나요?

책 제목은 브라더 앤드류의 아이디어였나요?

브라더 앤드류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나눠 드려야겠네요. 브라더 앤드류는 이 책의 작가인 존(John)과 엘리자베스 셰릴(Elizabeth Sherill) 부부를 캘리포니아 남부 여행 중에 만났습니다. 존은 가이드포스트 매거진(Guidenposts magazine) 기사를 위해 그를 인터뷰했고 책을 함께 써보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만 37세였던 브라더 앤드류는 6주 동안 셰릴 부부와 함께 살면서 지난 기억들을 떠올려,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세상에 알리게 해준 이야기들을 부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응접실 소파에 누워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브라더 앤드류는 책 제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책 제목은 출판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앤드류는 “마약 밀수업자”라는

함의를 가진 “밀수꾼”이라는 용어를 싫어했습니다. 앤드류는 “우리는 성경을 밀수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인 성경을 전할 뿐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들의 성경 전달 사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브라더 앤드류는 “밀수꾼”이라는 별명에 익숙해졌습니다.

SS

만약 브라더 앤드류가 더 젊었다면, 그는 ISIS와 같은 오늘날의 극단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브라더 앤드류가 스스로를 작가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그는 한 명의 복음전도자, 설교가, 선지자, 예언자(Visionary)이자,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간결하고 함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분명히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앤드류리즘(Andrew-ism)”이라고 부르는 에피소드를 9~10 페이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협업에 있어서 놀라운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책을 써달라고 한다는 건, 글썄요, 그런 일을 없었을 겁니다.

처음 브라더 앤드류와 함께 작업하기 시작한 게 언제였나요? 글쓰기 과정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밀수꾼’ 책이 발간된 뒤로, 브라더 앤드류의 동유럽 국가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시점이 앤드류가 중동지역을 방문하여 테러단체의 수장들을 만나고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이슬람에 관한 책을 출판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동구권에서 입국금지를 당한 일을 중동 땅에서 다시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 년 동안, 저희들은 최소한 그의 경험을 녹음이라도 해놓자고 앤드류에게 요청했고, 결국 1999년에 그가 동의하여 제가 네덜란드로 넘어가 일주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나 책 안 쓸거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책 쓰려고 당신과 있

는 거 아니야, 난 그냥 앤드류(Andrew)를 다운로드 받으려는 것뿐이야.” 저는 그와 17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녹음했고, 함께 한 1주일의 시간을 통해 저희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2년 뒤, 앤드류는 저에게 팔레스타인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 곳에 있는 동안, 저희 두 사람은 앤드류가 이슬람 지하드(Islamic Jihad)와 처음 만난 가자(Gaza) 지구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마스(Hamas)의 지도자와 한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팔레스타인 방문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9월 11일, 세계는 한 사건으로 인해 마비되었고, 무슬림 세계에 초점을 맞춘 앤드류의 공식적인 메시지가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알 안센은 브라더 앤드류가 선택한 자신의 공식 메시지 전달자였다.)

9월 11일 이후, 앤드류는 거의 매주 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센,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도 몰라. 그리고 아마도 세계가 마침내 그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테러리스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다른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혹시 브라더 앤드류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지는 않았나요?

물론입니다. 앤드류는 테러리스트들과 그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들은 앤드류가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 남성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가 전쟁 중에 한 쪽 눈을 잃어서 그를 ‘원 아이(One eye)’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앤드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만나러 이 곳에 온다는 것, 우리와 함께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을 때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 이것은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은 앤드류의 또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앤드류는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박해받는 교회의 적 역시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앤드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앤드류는 가끔 그들은 자

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적,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만약 브라더 앤드류가 더 젊었다면, 그는 ISIS와 같은 오늘날의 극단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보고 부름 받았다고 느끼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안센,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도 몰라. 그리고 아마도 세계가 마침내 그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내가 이슬람에 대해 배운 것들을 미국 교회가 들을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함께했던 여행들을 돌이켜 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다면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시 이슬람 지하드의 수장이었던 셰이크 알-샤미(Sheikh al-Shami)와의 첫 만남을 기억합니다. 처음 45분까지 매우 불편했는데, 앤드류가 불쑥 나타나서는, “안센, 여기 두 테러리스트(앤드류와 알-샤미) 사진 좀 찍어줘.”라고 해서, 알-샤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샤미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해서 통역을 통해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대화는 전형적인 파워 게임처럼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앤드류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셰이크 알-샤미가 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러와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가자에 있는 동안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자에 들어온 것을 알았는데 저를 보러 오지 않았다면, 아마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알-샤미는 크고 뺨뺨한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양볼에 입을 맞추며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우



리가 마지막으로 만남을 가졌을 때, 앤드류는 그에게 “알-샤미, 당신과 함께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묻고는, 하나님께서 셰이크 알-샤미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는 복음을 확인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은 많은 무슬림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몇 년 전, 브라더 앤드류는 셰이크 알-샤미로부터 생일 축하카드를 받았습니다. 카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셰이크 알-샤미는 2015년에 살해되었다고 보고되었다.)

그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독실한 무슬림들은 예수가 다시 재림할 것을 인정하지만, 무슬림으로서 재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셰이크 알-샤드 역시 같은 의미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는 복음에 정말 열려 있습니다.”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지하드의 지도자가 어떻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적들과 친구가 되고 교회들에게 “여기가 여러분의 선교 현장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브라더 앤드류의 능력일 것입니다.

가슴 속에 불타오른 사명 내 안에 무언가가 불타올랐다

브라더 앤드류(Brother Andrew)는 오픈도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했는지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첫걸음은 브라더 앤드류가 2년간 공부한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양성 학교 지하실에 놓여 있던 한 잡지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4색 컬러로 인쇄된 잡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될 전세계 사회주의 청년 축제(Worldwide socialist youth festival)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9,6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청년 단체에 대해 읽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리문답과 예배나 행사 등을 위해 소그룹을 모으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9,600만명이라는 숫자는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2~3년에 한 번씩 전세계 어딘가에서 큰 축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임 장소들을 눈여겨 봤습니다. 장소의 이름들이 저에게 너무나 생소했고, 마치 저에게는 닫혀진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사가 곧 열릴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 읽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인데 여러분의 행사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만약 제가 참석하게 된다면, 저는 크리스천답게 행동할 것입니다.” 저는 결코 답장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예상과는 달리 그들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참석하시고, 원하는대로 하셔도 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라더 앤드류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성경말씀을 가지고 가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용 복음서들과 기독교서적, 그리고 공산권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성경을 주문해서 그곳으로 보낸 뒤, 그곳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축제에 참석하여 공산주의 청년들의 마지막 퍼레이드 행진을 보면서, 브라더 앤드류는 자신에게지금 필요한 관점과 자세를 성경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군기가 잡혀 있고, 아주 자신감이 넘치며, 매우 공격적이고,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는 대형 퍼레이드 행진을 보았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이사야 45:23)’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무릎도 꿇으세요.”

그 당시, 브라더 앤드류는 오픈도어 사역의 영감을 준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르신 첫 날에 그 부르심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 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언젠가 오픈도어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셨다면, 저는 절대 그 첫걸음을 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 걸음을 걷고 나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절대 보여주지 않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걸음을 내딛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 때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저는 어떻게 그들에게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일단 한 도시로 가보자’하고 결단했지만, 돈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말조차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브라더 앤드류가 동유럽 첫 방문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천천히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체 이름을 오픈도어라고 부르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많은 모임들을 통해 설명하듯이, 오픈도어라는 이름에 담긴 놀라운 의미는 “우리들의 사명인 복음전파라는 지상대 명령 앞에 문자 그대로 모든 문들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문을 여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문들을 닫을 수 없고, 어떤 문도 닫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눈이 감겼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닫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들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닫혀 있는 문을 아신다면,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 주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저는 어떻게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픈도어(Open Doors)는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지원하고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브라더 앤드루는 동구권으로의 첫 방문으로 시작하여 교회가 공격받고 있는 중국, 구 소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 등 전세계 많은 곳으로 복음 중심적 사역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도어는 60개가 넘는 나라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브라더 앤드루에게 주신 "남겨진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묘비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경건한 말처럼 들릴 것 같긴 하지만, '그는 여기에 없다. 그는 부활하였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묘비에 적혀있는 문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브라더 앤드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입니다. 이보다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편집자 주: 이 이야기는 오픈도어가 녹화한 브라더 앤드루의 영상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수꾼 브라더 앤드류 (BROTHER ANDREW): 하나님의 품에 잠들다

브라더 앤드류(BROTHER ANDREW)
오픈도어 설립자

1928 - 2022

© Renske Meinema Photography | www.renskemeinema.com

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을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가려 할까요? 분명한 것은 오픈도어의 설립자 브라더 앤드류는 조심스럽고 안전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 다. 안전한 삶 대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 위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평생을 바쳐 심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과 믿음과 영원한 희망이라는 놀라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도전을 준 그의 삶에 대해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앤드류 반 데르 빌지(Andrew Van der Bijl)가 네덜란드 동인도제도 전쟁터에서 적의 매복공격으로 쓰러졌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스무살이었습니다. 총알들이 그의 부츠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발목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늘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한 경멸의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달픈 운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저는 스무살이었고 그래서 세상에 이보다 더한 모험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곧 다시 평가하게 될 깨달음이었습니다. 재활병원에서 회복하면서, 앤드류는 그의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처음으로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였고 그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앤드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욱 모험적인 삶을 시작 하였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냉전 기간 동안 철의 장막 너머로 비밀리에 성경을 전달하는 사역을 여러 차례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수차례 투옥될 위기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고, 정부 당국의 믿기 어려운 기적적인 실수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또한 극단주의 단체 지도자들과 만남을 갖기도 했고,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 중동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문은 열려있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픈도어, 문들을 여는 사역’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문은 언제, 어디서든지 열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돌아올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면, 저는 말 그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모든 문들은 열린다고 믿습니다.”

1928년 네덜란드 신티 판크라스 위트(Witte, Sint Pancras)에서 태어난 앤드류 형제는, 이웃 국가 독일에서 나치 세력이 부상하는 동안 성장했습니다. 1940년 독일군이 마을을 점령했을 때 브라더 앤드류는 어머니의 부엌에서 설탕을 훔쳐 독일 장교 기름탱크에 뿌리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나치 부대가 그를 잡으려 하자, 그들을 앞질러 가서 추격하는 군부대 앞에 폭죽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제 눈 뜬 자들의 눈을 가려 주십시오.”

전쟁이 끝나자, 브라더 앤드류는 18살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앞으로 뭐하고 살거냐고 물었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던 삶의 자세를 버리고, 고향 위트(Witte)를 떠나, 모험을 찾아 갑시다.”

모험을 찾아서

그래서, 18세가 되자, 그는 동인도 제도(현재의 인도네시아)에서 반란군을 진압하고 있는 네덜란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앤드류에게 성경책을 고, 그는 부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때까지 그 책을 더블백 바닥에 쑤셔 넣고 잊고 있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된 뒤, 브라더 앤드류는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항상 특별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는 WEC(Worldwide Evangelism Crusade)에서 2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1955년, 그가 오픈도어를 시작하게 된 첫번째 모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전세계 공산주의 청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암스테르담에서 폴란드 바르샤바(Warsaw)로 향하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짐가방은 철의 장막 너머로 비합법적으로 나눠줄 다양한 언어로 된 기독교 책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폴란드에서, 브라더 앤드류는 철의 장막 뒤편에 교회들이 고립되어 있고 그들에게 격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쇠퇴하고 있는 작은 교회에서 설교가 끝난 뒤, 교회 담임목사님께서 앤드류에게 다가왔습니다. “앤드류 당신이 설교를 10번 하는 것보다 당신이 이곳에 있

는 것 자체가 더 큰 유익이 됩니다. 비록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앤드류 당신을 눈으로 본 것만으로도 저희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남겨진 이들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은 브라더 앤드류가 폴란드를 방문하는 동안 그의 마음을 사로 잡았습니다. 그는 소외되고 고립된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후 그는 체코슬라바키아,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동독,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유명해진 하늘색 폭스바겐 비틀 자동차를 몰고 유럽을 횡단하면서, 그는 성경에 대한 접근과 종교적 표현의 권리를 억압받고 있는 국가의 교회들을 격려하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 수백 권의 성경을 국경 너머로 밀반입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브라더



앤드류는 폴란드에서 처음 들었던 이야기, 즉 교회가 고립되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앤드류의 방문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과 진심어린 보살핌 때문에 그들은(하마스의 지도자들과) 교제하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브라더 앤드류가 국경을 넘어 성경을 처음 밀수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 짐 가방 안에 국경을 넘어 아이들에게 전해줄 성경책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제 눈 뜬 자들의 눈을 가려 주십시오.” ‘눈을 멀게 하는 기도’는 모든 국경을 건너기 전에 선포되었고 오픈도어의 스탬프들은 지금도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지금까지 한번도 잡힌 적이 없습니다.

사실, 철의 장막이 무너진 후, 브라더 앤드류는 소련과 동유럽에서 진행한 자신의 사역에 대한 150페이지 동독 스타시(Stasi) 보고서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그의 사역을 멈출 수 없다는 것에 더욱 놀랐습니다.

백만 권의 비밀 성경책들

성경 밀반입은 1981년 6월, 진주작전 프로젝트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된 오픈도어 사역팀은 주문 제작된 바지선 선박을 타고 1톤짜리 포장 상자 232개에 100만 권의 성경책을 담아 중국 해안으로 띄웠습니다. 고요히 기다리고 있던 중국 기독교인들은 100만 권의 성경을 중국 전역으로 운반하였습니다. 타임지는 진주작전 프로젝트를 동일한 종류의 작전 중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작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공산주의 붕괴 이후, 브라더 앤드류는 중동, 페르시아 걸프 지역, 북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크리스천들을 향

한 이슬람주의자들의 폭력이 증가하는 현상에 관심을 돌리며, 복수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자(Gaza) 침례교회 목사이자, 가자 크리스천 미션(Christian Mission to Gaza)의 설립자 중 하나인 마사드(Hanna Massad)는 다음과 같이 브라더 앤드류를 기억합니다. “가자가 포위되었을 때, 우리 한가운데서 브라더 앤드류가 가자의 박해받는 교회를 격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자에서 어떤 기독교인도 하마스의 지도자들과 대화하려 하지 않을 때, 브라더 앤드류는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하마스의 지도자들과 대화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브라더 앤드류가 하마스의 지도자에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알아야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은 무기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과 진심어린 보살핌 때문에 그는 하마스의 지도자와 교제하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픈도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문은 언제, 어디서든지 열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967년, 브라더 앤드류는 철의 장막 뒤에서 보낸 그의 자세한 이야기들을 담은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그의 첫 번째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전세계 35개 언어로 번역되어 1,000만부 이상 팔리며 빠르게 베스트셀러 도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그 뒤 자신의 삶과 사역과 박해받는 성도들을 대변하고 지지하는 활동에 관한 16권의 책을 더 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격려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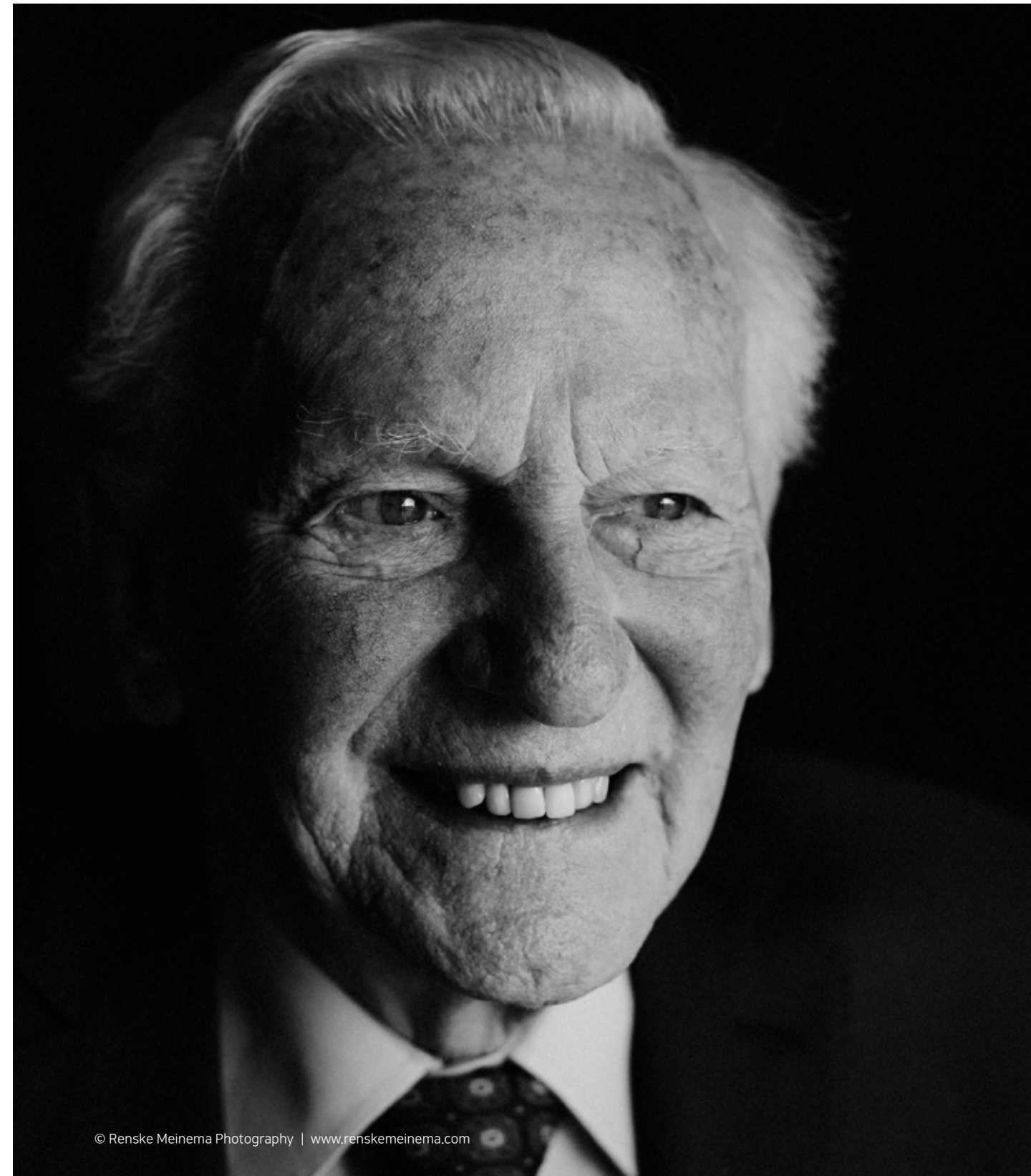
그의 마지막 여행지는 그가 늘 사랑했던 파키스탄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파키스탄 방문은 앤드류의 개인적인 여행이었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많은 오랜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사명은 늘 그랬듯이, 그 땅의 교회를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교회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피로하며 아픕니다. 우리는 브라더 앤드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과의 만남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잊혀지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브라더 앤드류를 통해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의 창립 대표인 요한 컴파니언(Johan Compañen)은 브라더 앤드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억합니다. “브라더 앤드류를 생각하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째, 그는 항상 새롭고 특별한 것을 찾는 선구자였습니다. 둘째, 그는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많은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을 나눠준 선지자였습니다. 수년이 지난 뒤 우리는 그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항상 독특하고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가능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는 매우 흥미를 느끼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브라더 앤드류가 서인도 제도 전투에서 돌아온 뒤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코리(Corry)로 알려진 아내 코넬리아(Cornelia)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네덜란드 알크마르(Alkmaar)에서 결혼했습니다. 코리는 1931년 3월에 태어나 2018년 1월 23일, 가족들 곁에서 주님곁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5명의 자녀와 11명의 손자/손녀들, 그리고 그가 설립한 단체 오픈도어(Open Doors) 안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 Renske Meinema Photography | www.renskemeinema.com



머스카슬론을 마치며... 장하림

저는 이번에 북한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Muskathlon(머스카슬론)이라는 스포츠 행사에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40명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각자의 일과 일상을 뒤로 하고 1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이 작은 나라에 왔습니다. 역사의 현장 한 곳 한 곳을 방문하며 북한과 남한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고통을 나름의 방식으로 체험하고 공감하고자 마라톤과 하이킹, 산악자전거라는 스포츠를 통해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많이 반성하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 43km 풀마라톤, 21km 하프마라톤, 63km 하이킹, 100km 바이킹 중 선택해서 머스카슬론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통역과 코스 중간 중간 설치된 식수대에서 물과 과일들을 나눠주고 참여자들을 응원하는 역할로 이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마라톤을 뛰기 전, 우리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 노동당사를 방문하고, 소이산에 올라 6.25 전쟁터와 DMZ와 그 건너편에 있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다같이 손잡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북한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속히 복음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소이산을 오르기 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하면서 올랐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대로 잊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먼 네덜란드에서 이곳까지 방문해서 북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제까지 너무 쉽게 잊고 살았는지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분단국가로서 슬프지는 않았는지 등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북한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저에게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탈북하신 박한나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우리의 마라톤과 이 행사를 너무 기뻐하시며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절대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정말 크게 반성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형제자매로서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누구보다 간절히 복음 통일을 소원해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40명의 사람 모두와 얘기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까지 부르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기대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부르심이 있었거나 엄청난 감격을 주신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단지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북한에 대한 소식을 알게 하셨거나, 교회에서 잠깐 스치듯 지나갔던 북한 소식 등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기도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마음이 커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북한에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 세계의 정의를 세우는데 모금과 마라톤으로 참여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3년간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가 미뤄지면서 그들의 마음은 더 간절했고 한국 방문을 더욱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마라톤을 몇 년간 준비했다는 그들은 한국에 와서도 마라톤을 뛰기 전까지 매일매일 훈련했습니다. 마라톤 당일에는 저는 식수대(워터포스트)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고 그들은 달리면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고통과 탈북의辛을 체험하려고 일부러 물을 건너고 돌길을 걸으며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온몸에 흠창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완주할 때마다 감동의 순간들이었고, 서로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매 순간 있었음을 몸소 느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한 마음으로 다같이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심을 느끼고 우리는 하루가 지날수록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기도의 날 (IDOP: International Day of Prayer)에 참여합시다.

세계기도의날(IDOP)은 지난 1996년 세계복음주의연맹(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 종교자유위원회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전세계에는 신앙 때문에 극심한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이 3억 6천만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세계 기독교인 7명 중에 1명이 신앙 때문에 살해와 폭력과 압박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올해는 전세계 130개국에서 박해받는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박해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서도록 격려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의 도움이 손길이 절실한 때입니다. IDOP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북한은 우리와 한 나라임을 잊지 말고 속히 복음 통일을 위해 힘쓰고 준비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01 언제?

2022년 11월 6일 혹은 13일 주일

02 어떻게?

지정된 날을 IDOP 주일로 선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03 무엇을?

한국오픈도어는 '중동을 위한 희망의 백만기도캠페인' 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신청부수만큼 발송해 드립니다.

04 누가?

교회, 주일학교, 소그룹, 개인 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자세한 사항은

한국오픈도어선교회(02-596-3171)로

문의해 주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전화번호	
출금계좌번호	은행		주소		
출금액	10,000원	출금일선택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 (한국오픈도어선교회)